

# 금년 부로일러 산업의 교훈과 제언

오 세 정  
〈건대 축대 교수〉

◇금년도 부로일러 육성 사업은 불경기  
의 연속이며 여름철 성수요기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이에 그 원인  
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갈 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부로일러 육성 사업은 기술면에서나 경영면에서 볼 때 급진적인 향상 발전을 가져오고 있으나 이에따라 반성과 개선할 점이 아직도 허다한 것을 느끼게 된다.

금년 부로일러 육성산업은 1월부터 8월 초까지 계속 생산 가격에 미달되는 가격으로 유통되어 사육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할 점에 대해서는 하고자 한다.

## 1. 경영 규모의 확대보다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하자

국민 소득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육류의 소비는 급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나, 현재로서는 수요에 따르는 생산 과잉이 될 염려가 많으며 또 외국에 수출할 가망은 전연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경영 규모의 무조건 확대보다는 자기의 경영기술과 능력 노력 자본 자연적인 여건에 따라서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사료 효율을 높이어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가서는 생산물을 유리하게 판매하는 알찬 경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돈이 있다고 투기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것은 실패의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 2. 남이 수지 맞는다 하여 뒤따라 시작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부로일러의 가격 변동은 예민하여 1년 몇번씩 고저의 기복이 있어서 남이 수지 맞는다고 하면 너도 나도 무리하게 길러내는 심리적 작용 때문에 생산 과잉이 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뒤따라 기르는 것 보다는 남이 수지를 맞추지 못해서 기르지 않을때 하면 오히려 수지를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부로일러 육성이 전업적으로 체계화됨에 따라서 진실하게 꾸준히 진행하므로써 기복이 심하지 않는 안전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3. 유통과정의 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가 닭을 사는 가격은 변동없이 비싼 값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반해 사육자는 생산가도 못되는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유통과정중 중간 마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생산자로부터 직접 소비자로 연결 되는 유통체제를 확립 하여야만 마진을 없애고 유리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신진국과 같이 전문적인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불안과 유동성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일

관성있게 일을 하지 않으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계약생산 체제가 이루어져 사육자는 안심하고 일정한 수수를 적정 가격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업화가 되어야 하겠고 전문 도매 시장이 개설되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 4. 생계 유통에서 도계 유통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생계 유통은 운반과 계류 중에 감량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시험 결과에 의하면 사육장에서 운반하여 도살할 때까지의 감량이 1시간당 1%의 체중이 감량 되었다. 하루 저녁을 더 재우면 15%~20%의 감량이 생기기되어 사육자나 소비자 또는 중간 과정을 담당한 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생계 유통에서 도계 유통으로 전환시켜 감량을 없애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떨어진 지방에의 운반은 더욱 절실히 도계 유통이 요청되는 것이다.

#### 5. 빠다리 사육에서 평면 사육으로

난용계 숫 병아리라면 빠다리 사육 시설도 무관 하지만 육용 전용추라면 평면에 길러야 앞가슴에 살이 찌고 육질과 상품 가치가 있다.

평면 사육이 케이지보다 육성율이 좋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환기 통풍을 철저히 하고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없게끔 안정된 사양을 하려면 케이지 보다 평사가 효과적이다.

또 닭을 놀라게 하던가 사양 관리의 급변을 삼가하고 신선한 사료를 공급해야 한다.

#### 6. 육계가격 안정기금의 방출

정부에서는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변같이 8개월 간이나 불경기인 부로 일러 산업에는 이렇다할 대책과 지원이 없는 것은 꼭 유감된 일이다.

농가 소득 증대 사업중에 양계의 비중은 상당히 큰 것이며 정부에서 양계업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시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의 무관심, 방관 내지는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앞으로는 적기에 안정기금을 방출하여 냉동 저장했다가 성수 요기에 수급을 조절하는 과감한 시책이 아쉽다.

계육값이 하락했을 때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보다 싸므로 정책적인 소비증대를 위하여 군납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양계업자 스스로의 자체력있는 생산체제도 필요하지만 영세한 농민과 후진된 사회 구조에서는 정부 시책으로 선도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71년 선거에도 이러한 문제가 적극 반영되었으면 한다.

축산중흥으로 농촌 경제를 부흥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를 윤택하게 한다는 정부 시책에는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바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계획과 탁상 공론에만 그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 7. 육계 생산 조합의 구성을 촉구한다.

영세한 생산업자 끼리의 무모한 경쟁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현재는 중간 상인의 횡포가 너무 심하여 닭을 의상으로 가져가 부도를 내거나, 한 두달치의 어음을 발행하는 사투가 허다하여 자금의 악순환으로 경영상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자 상호간의 연락이나 수집을 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양계 단지를 선정하고 조합으로 운영한다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곤란은 타개 할 수 있을 것이다.

#### 8. 행정력의 강화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생산자는 생계 kg당 160원에 출하하고 있는데 반하여 치킨 센타 등 소매상에서는 300~450원을 받고 있어 중간 상인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생계 값이 떨어질 수록 중간상인과 소매 판매업자의 횡포는 더욱 가중되어 부로일러 생산업자의 피해는 물론 전체적인 경제질서와 보건 위생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다.

행정당국은 소극적 무사안일주의를 지양하고 세무사찰이나 행정 지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야할 것이다.

### 9. 부로일러 종계도입의 재검토

부로일러 종계 도입 수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하나의 걱정거리이다.

부로일러 종계 사육기술은 산란 종계에 비하여 더 어려우며 능력 발휘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전에 없던 각종 질병까지 유발 시키는 실정인데 이는 외화의 낭비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종계의 도입을 전혀 안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양계 산업 발달에 지장이 올 수도 있겠지만 종계 도입업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사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현실 상황에서는 무제한의 종계 도입을 지양하고 국내계의 육종연구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10. 소비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자

닭고기가 다른 육류에 비하여 영양가치로나 가격면으로나 유리하다는 것을 널리 주지시켜야 하며, 소비 증대를 위해서 다음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 (1) 닭고기 먹는 날의 제정

1주일에 한번씩(토요일) 닭고기 먹는 날을 제정하여 이날만은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다른 고

기를 먹지 말고 닭고기만 팔고 먹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 (2) 정육점에서 의무적으로 팔도록

정육점에서는 닭고기가 이익이 적어서 취급을 안 한다고 한다. 쇠고기 돼지고기가 얼마나 이익이 더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 (3) 판매점을 확대하자

정육점뿐 아니라 어물전, 식료품점, 채소점같은 데서도 판매해야 한다.

#### (4) 군남의 적극 추진

국군의 부식을 닭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5) 닭요리 강습회와 시식대회 개최

닭요리 방법이 너무나 단순하므로 강습회, 경연대회, 시식대회등을 열어 개발시키고 여학교 가정시간에 닭이나 계란을 이용하는 실습을 강조시켜야 할 것이다.

#### (6) 매스콤의 협조

신문, TV, 잡지등에서 닭고기 이용과 소비증대를 위한 기사내용을 많이 취급하도록 할 것

#### (7) 위생적인 도제처리와 유통개선

닭고기는 위생적으로 도제 처리하여 검인 포장되고 상품 가치가 있게 만들어 판매되어야 하며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 판매토록 할 것.

삼화농원의 바브콕으로 여러분의 수익을 증대시키십시오.

3개년에 걸친  
미국 농무성의  
산란계  
경제 검정에서  
당당 제 1 위!



★ 30일추 분양

★ 60일추 분양

- 바브콕B—300 (고산란성)
- 바브콕B—305 (할 마릭씨병계)
- 바브콕B—390 (갈색란계)

미국 일본 비브콕 원종농장 한국특약부화장

삼화농원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Tel. 광천 145)